

통일부 장관, 고성 「DMZ 평화의 길」 방문

- 최전방 22사단 장병 격려 및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현황 점검도 -

【관련 국정과제】 118.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

-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월 21일(수), 「DMZ 평화의 길」 강원 고성 구간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방문했다.
 - 이번 방문은 통일부가 한 달 전 업무보고에서 약속한 ‘2026년 한반도 평화 공존 원년 만들기’와 남북 교류 재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현장에서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 - 아울러 「DMZ 평화의 길」 비무장지대(DMZ) 내부 구간 재개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육군 제22보병사단 장병들에 대한 연말연시 계기 격려도 함께 이루어졌다.
- 정 장관은 먼저 금강산과 해금강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「DMZ 평화의 길」 고성A코스 구간을 22사단장과 함께 걸으며 “이 길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으로 다가가는 진정한 「평화의 길」”이라고 강조했다.
 - 또한 지난 2019년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개방되었으나 현재 운영이 중단된 DMZ(비무장지대) 내부 구간에 대해, “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DMZ(비무장지대) 내부 구간을 다시 열어서 「평화의 길」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.
- 이어 정 장관은 고성B코스를 따라 차량으로 금강산 전망대를 방문, 동부전선 최북단을 지키는 22사단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위문 성금을 전달했다.
 - “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이고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”이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, “여러분들의 노력은 현재의 ‘코리아 리스크’를 미래의 ‘코리아 프리미엄’으로 전환하여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정착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”이라고 격려했다.

- 끝으로 정 장관은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와 동해지구 군 운영단 현황을 점검하며 “통일부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‘선민후관’의 원칙을 토대로 남북 교류 협력 생태계를 복원해 나갈 것”이고, “동해선 출입사무소가 다시 ‘평화의 관문’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신뢰부터 쌓아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- 또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2008년 7월을 회상하며, “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서 대화와 협력을 복원해 올해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원년이 되길 소망한다”라고 언급했다.
- 정 장관은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, 민통선 앞 동해안 최북단 마을인 명파리의 상점을 오랜만에 다시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“금강산 관광이 하루 빨리 재개되어 이곳에 다시 활기가 넘치고 사장님 장사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 : 관련 사진(별송)

담당 부서	평화교류실 접경협력과	책임자	과 장	박성렬 (02-2100-5840)
		담당자	사무관	박일권 (02-2100-5841)

